

속표지: 표지에 따라 교체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어른행동 미니북

마을N청소년

서 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어른 행동!
이 미니북은 캠페인용 책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장기 청소년은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대학입시를 위해 청소년기의 거의 대부분을 소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밖으로는 기후위기나 불안정한 환경 등 청소년이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건강한 삶과 관련이 많은 전문가—도시 문화 비데이터 전문가 이현웅 님, 기후위기 생태 양서류 전문가 신경아 님, 학교폭력 평생교육 전문가 구경자 님, 요양보호 건강 전문가 간호사 박은진 님, 청소년 교육, 권리 전문가 배상철 님— 다섯 명이 글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2

재미있는 글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문제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 기후위기와 청소년 환경, 청소년 폭력, 청소년 건강, 청소년 문제와 안전. 이외에도 청소년의 성장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내용들은 많지만, 제시된 다섯 개의 분야를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고의 확장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책자를 읽고 난 후 청소년의 삶 하나하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미니북을 통해 여러분도 청소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라도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어른행동을 바래봅니다.

2023. 7월 마을N청소년

3

차례

- | 청소년! 살며 쉬어가며 누려가며 7
- |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과 함께하는 어른 행동 .. 19
- | 학교폭력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태도 31
- | 청소년들의 건강! 왜 모르죠? 41
- | 대의 청소년은 안녕하십니까? 52
- | 필진 소개 60

청소년! 살며 쉬어가며 누리기며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

대한민국 청소년은 행복할까?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기로 알려진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행복할까?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23개 국가 중 최하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것도 최근 몇 년간 연속해서 최하위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도 세계 주요 20개국 중에서 최하위권인 1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 아동 세계 보고서 *Children's Worlds Report*, 2022).

☞ 청소년은 제대로 쉬고 싶다

사춘기로 대표되는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숙을 포함하여 심리·정서적,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권리가 균형 있게 갖추어지는 전인적 성장기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자아정체감 형성의 시기이다.

우리가 흔히 '청소년답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청소년기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 공부 등 학습을 통한 지적인 성장뿐 아니라 어른들로부터의 정서적 독립과 권리실현을 위한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충분히 쉬고 제대로 놀고 즐길 줄 아는 문화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 1989년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권리(제24조)를 포함하여 편안하게 쉬고 재미있게 놀 권리(제31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지표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은 낮으며, 행복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행복지수 순위

(단위:점수, 평균:100)

순위	국가	행복지수
1	스페인	113.6
2	그리스	112.5
3	네덜란드	110.3
4	오스트리아	108.2
5	스위스	107.0
6	스웨덴	106.8
7	이탈리아	106.1
8	아일랜드	106.0
9	핀란드	104.7
10 ⋮ ⋮	미국 ⋮ ⋮	102.6 ⋮ ⋮
23	대한민국	66.0

“ 모든 아동은 편안하게 쉬고 재미있게 놀고 문화 활동과 창작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 청소년은 제대로 쉴 시간이 없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 시기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청소년다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대다수 청소년에게는 제대로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무엇보다 대학입시 경쟁교육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일일 학습시간은 성인 근로자의

일일 노동시간보다 많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된다. 코로나-19 이전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결과, 중학생의 평일 평균 학습시간은 8시간 40분, 고등학생은 평일 평균 10시간 10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18, 통계청).

현실적으로 학습시간이 많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허용 시간이 부족하고 수면시간조차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인해 수면시간까지 침해받는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 우리나라 아동 약 70%는 학교, 학원 숙제 등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

—2018. 보건복지부 아동 실태조사

📍 청소년은 제대로 쉬고 놀고 즐길 공간이 없다

설령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문제는 청소년들이 쉬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청소년들이 즐기고 쉬는 추구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항 3호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내가 사는 주변(읍·면·동)에서 청소년들이 즐기며 놀 수 있는 설치 의무 시설로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을 찾아보기가 어렵다(이참에 주위에 청소년들이 갈만한 청소년 시설이 있는지 살펴보길 권유한다). 학교 - 학원 - 스키드카페로 연결되는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놀고 즐길 문화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들어 농촌 지역

에도 복합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져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늘긴 하지만, 청소년만의 독립된 전용공간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1항 3호

📍 청소년에게도 워라벨(스라벨)이 필요하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삶을 격려해주는 말이 있다. 대부분 이렇다.

“공부만 하지 말고, 책도 좀 읽으면서 문화 생활도 좀 즐기고..., 주말에는 봉사 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다.

몇 년 전 워라밸이라는 말이 꽤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

워 라이프 밸런스(Work - Life Balance),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한다. 『트렌드코리아 2018』에서 당시 20대 직장인을 '워라밸 세대'로 주목할 정도로 젊은 세대들의 코드와 잘 맞는 말이기도 하다. 대통령선거에서 '저녁이 있는 삶' 등을 구호로 내세우기도 하였으며, 주 52시간 근무제 등 일부는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워라밸에 이어 스라벨(Study - Life Balance)이란 말도 생겨났다. 단축어에 익숙한 청소년세대들의 세태를 반영한 말로 '학업과 삶의 균형'을 의미한다.

비야흐로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AI) 챗GPT의 시대이다.

과거 선배 청소년들의 시대는 대학입시에 열 올리고, 무슨 의미인지 모를 암기식 학습에 방점을 찍는 방식이 통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 기반을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시대에서는 차원이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빠르게 돌아간다. 스마트폰이 필수 아이템이었던 시대에서 아이패드와 필수 아이템이 되는 시대로 변화하는 것처럼. 배움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무엇보다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스라벨 '학습과 삶의 균형'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어른 행동

얼마 전까지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 어른들의 생각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변화하고, 자세와 태도가 변화하면 세계관이 넓어진다
것이다.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살아”**

이제는 청소년을 대하는 어른들의 행동부터 과감히
변화할 때다.

문화가 있는 청소년의 삶을 응원하는 어른 행동을 나
부터 실천하고자 한다. 이에 공감하고 행동으로 실천하
는 어른들이 한명 한명 늘어났으면 한다.

첫째, 청소년과 어른들 모두의 워라벨과 스타벨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어른 행동이 필요하다. 어른들과 마
찬가지로 청소년에게도 건강을 위한 수면과 휴식, 그리고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등 충분한 여가가 주어질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에게 지나치게 많은 학업 시간과 학업량을

줄이기 위한 어른 행동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생에게
는 숙제 등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학부모들의 관심과 제
기
가 있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문화적 삶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
도록 어른 행동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법적으로 보장하
고
되어있는 다양한 청소년 문화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하다.

넷째, 청소년들의 생각이 고루하고 획일적으로 되지
않도록 무한한 창의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어른 행동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부터 토론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른들의 권위는 내려놓고 청
소년의 생각을 동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
하다.

다섯째,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어있는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

고 견제하는 어른 행동이 필요하다. 국회, 광역의회, 기초 의회에서 청소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즉각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학벌 위주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사회환경을 변화하는 어른 행동이 필요하다. 학연, 지연, 학벌, 학과, 직업 차별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변화를 만들어 가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과 함께하는 어른 행동

신경아 (두개비친구를 사무처장)

양서류를 아십니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체계를 별도로 가지지 않은 동물이 있다. 대부분 동물은 천적과 같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으로 피부를 진화시켜 왔다. 포유류 대부분은 털과 단단한 가죽을 가지고 있어서 천적으로부터 보호와 함께 체온 유지를 하여 생명을 보존한다. 조류는 피부에 깃털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와 함께 비행에도 최적의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진화하였다. 또, 파충류와 어류는 피부를 보호하는 비늘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양서류는 다른 동물군들과는 다르게 피부에

별다른 보호막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양서류가 호흡에 필요한 습 일부를 피부로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속 생활을 하는 올챙이 시절은 어류처럼 아가미로 호흡하고 꼬리느러미로 헤엄을 치며 살아가다가 이후 자라서는 물에서 벗어나 땅 위의 삶으로 변해가며 호흡이 폐의 호흡으로 기능이 바뀌지만, 땅 위의 다른 동물들처럼 완전한 폐호흡으로 바뀌지 않기에 피부를 통해 부족한 호흡의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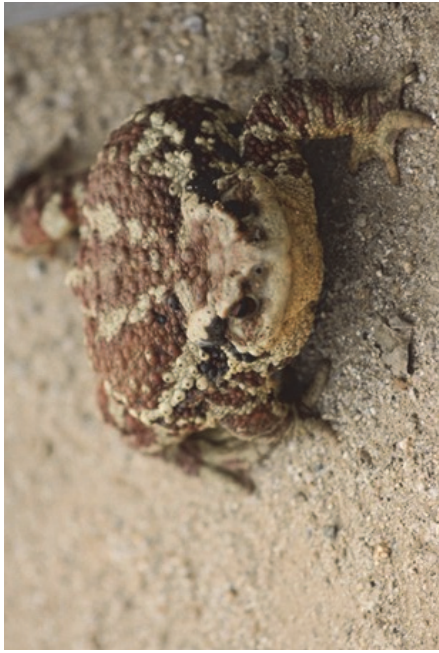


사진 1. 두꺼비

이러한 생태적 습성을 지닌 양서류는 다른 동물들처럼

털이나 비늘로 피부가 덮여있으면 피부 호흡이 어렵게 된다. 양서류의 노출된 피부는 두께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얇은 껍질의 피부막으로 되어있다. 얇은 피부를 가지고 있기에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끈끈한 점막을 만들어 수인성 병균에서 오는 질병을 막아내며 일상을 살아가고 때로는 치명적인 독을 만들어내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또한, 피부 호흡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피부가 마르지 않게 유지하여야 하며 햇빛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피부의 점막과 수분이 말라 호흡 부족으로 질식사하여 죽게 된다.

그러기에 양서류는 성체가 된 후에도 늘 습기가 유지되는 숲이나 물가 주변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는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어야 잘 살아갈 수 있는 얇은 피부막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가 주변에서 양서류를 만나는 건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다.**

☞ 위기의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 양서류

양서류는 노출된 피부로 인해 기후의 변화에 민감하게 된다. 요즘과 같이 기후의 이상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부 변화에 민감한 양서류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만약 어느 날 이상 기후 현상으로 지구의 습도가 갑자기 줄어들었다면 99%의 양서류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 수온에 변화가 오고 장마 등 우기의 시기에 급격한 변화가 온다면 양서류는 산란의 시기를 제때 조절하지 못하여 세대를 잇는 번식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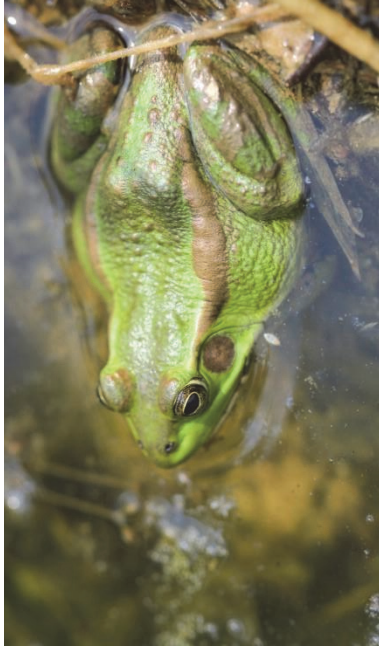


사진 2. 금개구리

두꺼비순찰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지난 10년간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 조사를 해왔다. 기후의 급격한 변화와 이상 현상으로부터 민감하게 생태적 습성이 변화 될 가능성이 큰 양서류로 큰산개구리와 맹꽁이를 지정하여 산란 시기의 변화를 지속해서 조사했다. 조사하며 산란 시기가 이상 고온 현상으로 빨라질 거로 생각했는데 조사 후 몇 년간은 산란 시기가 빨라졌지만, 그 이후 최근 몇 년간은 산란 시기가 오히려 늦어지기도 하였다. 겨울철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수량 부족으로 오히려 산란 시기가 늦어진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은 겨울 가뭄과 봄 가뭄이 심하여 양서류의 산란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농작물에도 심각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은 사람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 것이다.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 조사를 통해 기후의 이상 현상을 사전에 감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을텐데 현재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만큼 빨라도 너무 빠르게 그리고 위험하게 변화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의 삶

그런데 이런 심각한 기후 이상 현상은 무엇이 만들었을까? 왜 변화되고 있는 것일까? 사람에게도 위험하고 자연에도 피해가 많은 이상 현상들! 이런 현상은 자연이 스스로 변하고 있는 현상 중 하나일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도시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그로 인해 살터를 잃어가는 생명들!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자연의 파괴를 낳는 개발!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 쓰레기!

기후위기는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다.

물 생명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는 없을까?

자연이 깃들어 사는 도시 발전은 없는 걸까?

사람을 비롯하여 생명이 존중받는 생태 도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낼 수 없을까?



사진 3. 청소년이 제작한 두꺼비생태공원 설치물

이제 시민은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을 위해, 물 생명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도시에 대한 생태적 개발을 고민해야 하며 미래를 위해 자연의 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연을 바라보는 눈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야 하기에,

이는 자연과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늘 청소년이지 않다. 시간이 지나 미래가 되면 성인이 되어 미래의 주인이 된다.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하

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멸종위기 생물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들은 도심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자연과도 같다. 개발의 압력에 놓이면 멸종위기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놓여버리는 위태위태한 불안정한 생명과도 같다. 어찌면 미래를 고민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은 멸종위기 생명일 것이다. 모든 인간은 청소년 시기를 거쳐 어른이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여 애써 차별을 만드는가? 다 자라지 않은 것은 미래 불완전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다 자라지 않은 것은 미래에 무엇이 될는지 모를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거대한 희망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청소년을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의 사회가 성과가 명확하기만 해야 하는 개발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우선인 사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진 4. 두꺼비생태공원 탐방 중인 청소년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두꺼비순찰대의 청소년은 이른 봄이 되면 순찰대 발대식을 시작으로 일 년 동안 청주의 양서류들을 살펴 가며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의 마을활동가들과 같은 곳을 조사하고 같이 보호 활동을 펼치며 사회의 작은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다. 좀 더 적극적인 보호 활동으로 내셔널트러스트(자연 자산 공유화) 운동에도 참여한다.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미래를 보존하는 여동적 활동으로 영구히 미래에 전달해야 할 소중한 자연 자산을 청소년의 힘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보존하는 활동이다. 용돈을 모아 내셔널트리스트 운동에 참여하여 미래의 자산을 함께 보유하는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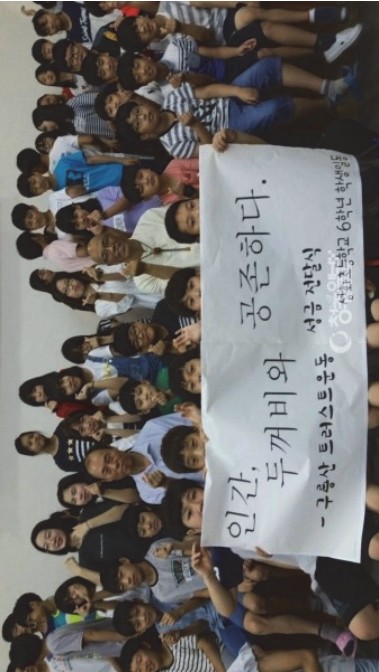


사진 5. 청소년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참여 - 성회초등학교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과 함께하는 어른 행동

자연을 바라보는 눈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야 한다.

자연과 청소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과 청소년은 지구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기에! 지구의 심각한 기후위기로부터 모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 매일 매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러나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누리기에 여념 없다. 그러나 지구는 이제 더 기다려 줄 여유가 없다. 내일 곧 우리에게 지구에 커다란 기후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 ◆ 자연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자연의 이쁨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 ◆ 청소년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청소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 ◆ 우리가 우리의 지구를,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태도

구경자 (KACE 청주 부모리더십센터장)

☎ 더 글로리가 주는 사회적 메시지

재준 : 너는 뭔가 변했다? 고딩 때는 흑백이었는데

뭔가, 알록달록해졌달까?

동은 : 근데 재준아.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 더 글로리 4화 중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나오기 이전부터 학교폭력은 꾸준히 있었지만, 요즘 그 어느 때 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주 큰 시기이다.

유명 연예인이나 고위 공직 후보자 이들의 과거 이력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고, 청소년 시절 학교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여자가 자신의 온 생을 걸어 치밀한 준비로 가해자들을 복수해 가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이슈화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의식이 아주 높아졌다.



동은이 불을 무서워하는 걸 알아챈 동은의 엄마는 불을 지르고 웃는다.


고마워 엄마 하나도 안 변해서 그대로여서 정말 고마워

— 더 글로리 13화 중에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해치고, 불편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인 학교폭력. 과연 부모인 나와 우리 자녀와는 무관한 일일까? “우리 아이는 맞은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어요.”라고 말하며 외면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맞거나 때리지 않아도 말로도 상처를 줄 수 있고 그것도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예전에는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폭력이 학교폭력 범주 안에 있었으나 요즘은 성적폭력, 금품갈취, 사이버폭력도 폭력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학교폭력 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그 사람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부분이 또 있다. 방관자들 또한 피해를 본다. 학교에 폭력이 난무하게 되면 노골적이든 은밀하게 학교폭력이 벌어지든 간에 학교 전체에 불안감과 공포감이 감돌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 등학교 시나 학교에 있을 때 학교가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학교에서는 일체감, 융화보다는 파벌과 군집들이 생긴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성격도 낮아지게 된다. “나는 때리

지 않았어.”, “나는 맞지 않았어.” 이것만 가지고 이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학교폭력은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이런 위협감 속에서 우리의 ‘뇌’는 활동을 축소 회한다. 학습 및 여러 활동을 확장해서 경험해 가며 성장해야 할 시기에 가능하면 최소화로 줄이려고 하니 결과적으로 모두가 손해나 피해가 올 수 있다. 우리 모두의 문제를 생각해보게 하는 사실이다. 부모로서 직접적인 내 자녀의 문제로 닥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지연명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점점 더 폭력의 수위나 사태의 다양성이 생김에 따라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들의 성격과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인지해야만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점검해 보자. ‘부모인 나는 학교폭력에 대한 단계별 폭력지수에 대해 알고 있나?’

- 1단계: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따돌림
- 2단계: 나쁜 표정을 짓거나 나쁜 눈빛으로 바라봄
- 3단계: 나쁜 별명을 붙이고 놀림
- 4단계: 나쁜 소문을 내거나 모욕을 줌
- 5단계: 못살게 굴거나 노골적으로 따돌림
- 6단계: 위협하고 협박함
- 7단계: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망가뜨림
- 8단계: 발로 차거나 몸을 때림
- 9단계: 흥기로 위협하거나 흥기를 사용함
- 10단계: 살인

‘난 과연 어느 단계부터가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했나?’ 대부분의 어른이나 부모들은 7번이나 8번 정도는 되어야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전에는 ‘저러다 말겠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사실 그때까지는 별로 개입을 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인지부터가 부모의 역할과 태도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가들이 연구해 본 결과 제일 좋은 효과가 있던 것은 1단계부터 학교폭력으로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큰 산불이 나기 전 작은 불씨부터 살피고 끄는 것. 예방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라고 하는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은 폭력을 키우는 것이다. 다툼과 폭력은 분명 차이가 있다. 가해자의 경험은 가정뿐만이 아닌 건 강하고 안전한 사회로서의 순기능을 망치게 한다. 피해자의 경험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서적, 신체적 고통의 후유

증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게 한다. 필자는 현재 학교폭력 의 피해자 경험으로 학교 부적응의 문제들이 발생한 청소년들을 학업중단수려제 대안 교육으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문제를 자주 접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 선택적 항구증, 집중력 저하, 학교 결석, 학습된 무기력감 등으로 힘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후유증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간혹 “그냥 잊어버려.”, “참고 살아.”, “세월이 약이다.”라고 하는 어른들의 안일한 태도나 역할에 안타까움이 크다. 피해자들에게는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가해지는 사과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돕는 어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함을 강조한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다시금 돌아보고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에도 필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가정환경의 조성과 양육 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어른 행동

학교폭력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피해자일 것이다. 그러나 부모 역시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많은 부모님은 내 자녀에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 어른이지만 처음 겪는 일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랑하는 자녀의 일기기에

더욱 마음이 아프고 경황이 없다.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다.

부모도 피해자가 된다. 가해자도 먼저 피해자였던 경우도 많다. 학교폭력은 모두가 피해자다. 결국, 피해자만 있는 학교폭력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부터 더욱 가까이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단호하게 교육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학교폭력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몇 가지 실천을 이 글을 읽는 부모님들께도 추천해 본다.

첫째, 부정에서 나와 긍정으로 가는 연습하기
둘째,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하기
셋째, 가정이 세워지도록 부부가 먼저 화목해지기
넷째, 자녀와 짧은 시간이라도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 갖기

다섯째,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하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작은 움직임을 실천해 보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 왜 모르죠?

박은진 (청주방문간호센터장)

부모의 마음

고등학교 학생을 둔 엄마로서 청소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늘 관심 있게 쳐다보게 된다.

출근 시간에 차창 밖으로 등교하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다가 나의 학창 시절과는 참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세월이 제법 지났지만, 나의 학창시절과 뭐가 다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등굣길 풍경부터가 달랐다.

지금이라도 막 달려올 것 같은 학창시절 친구들의 그들 린 얼굴과 등굣길에서 서로의 이름을 목청껏 부르며 뛰기도 하고, 삼삼오오 웃어대거나 장난을 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등교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의 모습은 다르다.

너무나도 조용해졌으며 외모는 출중하나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도 떨어져 보이고 심지어 세계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학교 급식으로 5대 영양소 골고루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 처져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은 왜일까?

기성세대의 품지 않은 시선인지, 애처롭게만 보이는 엄마의 안타까운 맘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거리에 고개 숙인 채 핸드폰만 보고 홀로 걷는 학생들이 더 많이 눈에 보이는 것과 친구가 옆에 있어도 별 수다도 없이 한 손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등교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 활기차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듯싶다.

핸드폰으로 놀고 배우고 사는 요즘 세대의 문화로만 여기기에는 여전히 맘이 편치가 않고 무거운 책임감까지 들게 한다.

간호사의 눈

그래서 나는 간호사로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현상을 간호사의 눈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규정해보고 '건

강한 상태'로 가기 위한 나의 작은 소견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자기 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를 원인으로 꼽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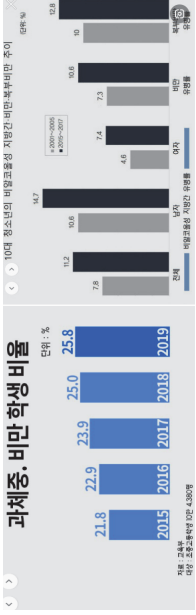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2020년 청소년 통계표 조사 결과 95%가 자신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청소년 건강에 대한 여러 조사 연구에서도 대체로 70% 이상의 청소년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기에 점차 증가하는 비만율이나 우울증의 증가를 보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실제 건강하지 않은 지표가 있어도 그것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청소년기의 건강지표는 흡연율, 음주율, 아침 식사 결식률, 패스트푸드 섭취율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비교를 하자면 (극도로 싫어하지만) OECD 평균지표보다는 낮다고는 하지만 나쁜 지표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걱정의 단계를 접어들고 있다. 특히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OECD 평균지표보다 높으며 2012년 이후 상승률도 제법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한 청소년기의 비만은 고혈압, 당뇨, 지방간, 심뇌혈관 질환 등의 30세 이전 진단율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병원에서 30대에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9.3명으로 10년간 줄지 않고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의 원인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치료 시작 나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소아 청소년 지방간 비율도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계속해서 무관심하게 대처한다면 우리나라 성인별 증가율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스스로 건강하더라도 자신하기보다는 실제로 건강강화를 구체적 자료로 접근하여 청소년기에도 충분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학교 보건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건강 행위 실천 부족으로 볼 수 있다.

건강 행위 실천이란 건강에 위해 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금주, 금연, 수면시간 지키기, 아침 먹기 등이다. 청소년기의 흡연이나 음주는 오히려 우울, 자살 등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으며 짧은 수면장애는 불안장애의 위험을 높이는 강한 영향 요인이다.

또한, 수면 부족과 피로감으로 인해 선택되는 고농도 카페인 음료나 커피는 청소년들의 60% 이상이 선택하고 있으며 30% 이상은 카페인 1일 섭취량 이상을 섭취함으로써 인해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 성인보다 카페인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은 카페인 부작용인 가슴 두근거림과 부정맥 등이 나타나 오히려 불안장애와 밤 수면을 방해하여 피로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아침 결식이나 무리한 체중조절 행동은 우울감과 매우 연관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로 비만이 아닌 여학생들이 거식증이나 폭식증으로 인해 영양 상태 불균형에 이르게 되며 자아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우울감에 빠지며 지속적인 우울감은 결국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1위인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전국 편의점에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주의' 문구 표시

청소년기의 건강 행위 실천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을 연구한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기에는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음주, 흡연, 수면장애, 약물복용 등)를 복합적으로 하는 경

우가 많아 신체적, 정신적 불건강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중, 고등학교에서는 금연, 금주,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으나 건강 행위 실천으로서 학교 안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교육 후 개인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 됨으로 인해 지속적인 건강증진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아침 거르지 않기, 신체활동 증가, 수면 교육을 통한 수면시간 확보 등의 건강 행위를 실천한 청소년들의 결과는 매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부분이 방송되기도 했지만, 전국적인 확대는 되지 못하고 어느 유명 기숙형 자사고에서 학업 향상을 목적으로 한 건강 행위 실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 부분까지 학습적인 면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명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 조금 광범위하지만, 청소년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이려 보았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학습적인 부분이 과다하게

차지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전하여 예민하고 힘든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경쟁은 출생률 저하에도 여전히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

SNS를 통해 쉽 없이 올라오는 과정 없는 결과물 같이 잘생긴 연예인, 건물주 스타들, 해외 여행기, 플렉스 사진... 어찌보면 청소년들의 자존중감 저하는 사회의 책임이며 입시교육으로의 편향이 낳은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건강권 회복을 위한 어른 행동

어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온다. 민주화 운동 열심히 하면 사회가 민주적으로 되고 그로 인해 선생님들의 처우가 좋아지고, 또한 학생들에게 바른 교과서로 교육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사회가 될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진함이라고 해야 하나 무지함이라고 해야 하나 싶다. 아무튼, 다시 사회적 고민에 빠진 시민이 아닌 간호사로 돌아가야겠다.

선한 영향력



청소년들의 건강하지 못한 위험요소에 대처하는 어른들의 현명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어른의 한사람으로서, 부모로서, 간호사로서 이에 대한 대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을 둔 부모는 자녀들에게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두고 청소년 시기의 건강의 중요성을 알려

야 한다. 쫄기에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쫄기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것은 없다. 성장기 청소년이 건강을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함을 꼭 설명해 주자.

둘째, 몸에 해로운 물질을 멀리해야 함을 교육하자. 예를 들면 과도한 패스트푸드 섭취, 음주나 흡연, 약물 사용(마약성 약물, 흡입제 등)을 시작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리고 건강 행위 행동을 실천한 경우 맘껏 칭찬해 주자. 부모도 함께 실천하면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딸이 함께 금연실천을 한다든지, 엄마와 함께 금주 또는 비만 탈출 운동 등이 그 예라 볼 수 있다.

셋째, 학업 외에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군에 도전할 수 있도록 부모부터라도 학업 중심의 자녀 교육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시험 성적만 나오면 '돈이 아깝다' '학원은 왜 다니냐' 등으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바닥

치게 만드는 언어 습관을 버리고 아이들과 산책하면서 시시콜콜한 얘기도 나누고 소통하는 부모가 되도록 하자. 그리고 신체 건강만큼 정신건강도 중요하니 정신건강을 튼튼할 수 있는 칭찬,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어렵다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하고 가족 모두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요즘 맘에 확 와 닿은 한 인터뷰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70 인생 지나고 나니 우리는 너무 인생을 속제하듯 살았어요. 대학 가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아이 낳아야 하고 집 마련해야 하고, 애들 결혼시켜야 하고... 그냥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말고 하루하루 축제처럼 살았으면 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결국 인생이 되거든요.”

백의 청소년은 안녕하십니까?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정말 안녕하세요?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중에 아래층 사는 꼬마아
이와 아빠로 보이는 어른이 났고 꼬마아이가 멀뚱히 있자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는 거라 했고 꼬마아이는 껌연쩍
은 표정으로 인사를 한다.

예로부터 조선은 동방예의지국의 나라라 우리는 어릴
적부터 어른을 만나면 예의 바른게 인사를 하도록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다.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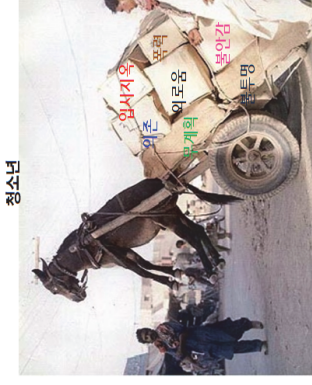
어른이 되어 이런저런 인사를 자주 받는 처지가 되고
보니 불편듯 이런 생각이 든다. ‘정말 안녕한가?’

안녕(安寧) 사전적 의미는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함을 의미한다. 그러니 이런 의문이 들만도 하다.
‘정말 아무 걱정도 없어?’ 아니면 ‘정말 편안한 거야?’

정말 안녕하지 못한 사회

어른들의 처지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청소년 처지
에선 정말 안녕하지 못하다.

필자가 청소년교육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에게 ‘힘들
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가장 많이 응답한 대답은 ‘입시지옥’이었다. 그다음은 ‘의
존’, ‘폭력’, ‘외로움’, ‘불안감’, ‘불투명’ 순이었다. 예나 지
금이나 청소년들은 전혀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다.



청소년

1989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영화를 기억하는 어른들이 있을 것이다. 1986년 성적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이 남긴 마지막 문구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이다. 충격적인 교육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영화가 개봉된 이후 청소년들의 처지는 좀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3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학업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의 소식을 듣고 있다.

청주의 한 중학교 2학년 A양은 수개월 전 친구 B양의 집에 놀러 갔다가 엄청난 일을 당했다. 친구의 의붓 아버지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A양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의붓딸인 B양을 폭행하고 학대를 일삼았던 게 알려졌다. 두 친구는 각각 해당 학교의 위(Wee)센터를 찾아, 성폭행 피해와 학대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어릴 때부터 의붓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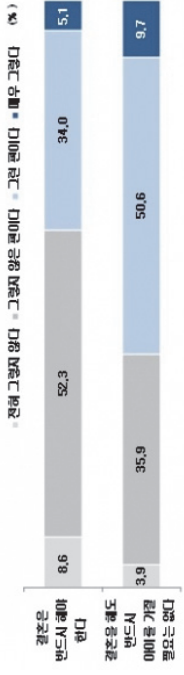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거쳐 사실을 확인한 뒤 C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거쳐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포함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C씨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이 두 여중생은 청주와 한 고층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됐다.”

(2021.05.14.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1666>)

결론요? 그냥 혼자 살래요.

2020년도 코로나팬데믹 이후 청소년들의 삶에도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서 코로나 19로 청소년들의 삶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변화가 많았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

에 대해 39.1%가 동의하여 이전 대비 큰 폭으로 감소(17년 51.0%)하였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결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60.3%로 '17년 (46.1%) 대비 매우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고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안전할 권리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연과 사람의 공존, 도시와 인간의 어울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이나 장애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당연히 청소년도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안전은 인류 생존의 근본적 문제이다. 우리 삶에서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없다. 안전한 나라, 안전한

도시, 안전한 마을, 안전한 학교, 안전한 가정은 청소년 시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서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헌법 제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고히 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생각 - 워드클라우드

☑️ 청소년의 안전한 권리실현을 위한 어른 행동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기관은 가정-학교-사회를 연결하여 청소년 누구나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둘째, 거시적 환경 측면에서 모든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셋째, 어른들은 청소년 주변에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고 내가 개선할 수 없는 것은 행정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넷째, 여성이든 남성이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우리는 모두 동등한 시민의 권리를 갖는다. 어른들은 청소년 시민이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애인을 위한 환경, 노약자를 위한 환경, 여성 친화적 환경, 아동 친화적 환경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 어른들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펠진 소개

이현웅



- ▶ 전 서원대학교 조교수
- ▶ 전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 ▶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원

신경아



- ▶ 두깨비친구들 사무처장
- ▶ 청주교육대학교 조교
- ▶ 한국양서파충류보존네트워크 운영위원

구경자



- ▶ KACE청주부모리더십센터장
- ▶ 충북교육청시정 단기대안교육 위탁기관 대표
- ▶ 충북학생상담연합회장

박은진



- ▶ 청주방문간호센터 센터장
- ▶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겸임부교수
- ▶ 한국 방문간호사회 충청지부장

배상철



- ▶ 마을N청소년 대표
- ▶ 충북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교육위원장
- ▶ 대덕구범동청소년문화의집
원장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어른행동 미니북

발행일 : 2023년 7월

발행처 : 마을N청소년

(28626)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201호 (산남동)

이메일 tny2019@naver.com Tel. 043-287-6379

홈페이지 <https://tny.modoo.at> Fax. 0504-211-1651

· 이 자료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